

교육현장 갑질 연이어 붓물 터지듯 쏟아져 '충격' 도내 특수학교 관리자 수년간 갑질 자행

전교조 전북지부 "A 특수학교 대상으로 종합감사 실시, 갑질 관리자를 즉각 중징계하라" 주장

연이어 교육현장에서의 '갑질'이 붓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벌어진 유치원 원장의 갑질에 이어 도내 특수학교에서도 수년간 관리자 갑질이 자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전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5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 특수학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갑질 관리자를 즉각 중징계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북지부는 "견디다 못해 수면 위로 드러난 갑질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며 "전라북도 전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리자에 의한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얼마나 많은 교사가 고통 속에 인내하며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 개별 교사 문안인사 시작
- 교직원을 개인 기사처럼 이용
- 복무 위반 '다반사'
- 교직원 대상 폭언과 함께
- 정강이 등 발로 차기까지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A 특수학교 교장은 개별 교사의 문안 인사를 시작으로 교직원들을 개인 기사처럼 이용하고 복무 위반은 다반사에 교직원들에 대한 반말과 폭언은 물론 정강이와 엉덩이를 발로 차기까지 했다. 부부교사라는 이유로 사직을 강요하며 이를 빌미로 괴롭히고, 교직원 간의 관계를 부적절하게 몰아가며 여교사에게 자신에게 술을 안아서 서운하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심지어 교장의 자택 방문 수리, 보일러 급수 모더와 보도블럭을 교체, 장작나무를 마련하는데 근무중인 직원들을 동원하는 등 마치 직원들을 자신의 수족처럼 부렸다. 또 병원 진료를 가야한다



전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5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 특수학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갑질 관리자를 즉각 중징계하라"고 주장했다.

누가 다쳐왔냐며 나무라고 욕설했다. 갑질 행위는 교감도 마찬가지로 특정 교사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시설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과 인권 침해는 더욱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2020년 코로나 감염병 상황에서 5월 27일부터는 전체 학생이 격일 등교를 시작했음에도 시설에 있는 7명의 학생들은 등교하지 못했다. 학생들은 등교 요구를 강하게 표현했고 시설장과 상담사회의 회의 결정으로 학생들을 안전하게 등교시키겠다고 학교에 호소했으나 11월 2일까지 단 하루도 등교하지 못했다. 시설장은 11월 3일부터 이사장과 학교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학생들을 등교시켰으나, 12월 18일에는 등교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쫓겨나 돌아왔다. 결국 시설장은 다시 학생들을 학교

로 보냈고 이를 이유로 이사회로부터 '강등'이라는 징계까지 받았다. 또 교장은 올해 10월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등교하는 학생들의 얼굴을 만지거나 가까이에서 교사들과 이야기했다. 500만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진행된 2학기 현장학습 장소는 휠체어를 탄 학생들은 갈 수도 없는 숲속 펜션이었고 체할 후 제공된 학생들의 식사는 큰 접시에 돈가스 1개, 밥 한그릇을 주며 4명의 학생이 나눠 먹게 했다. 이처럼 이들은 학교의 비정성적 운영과 갑질을 나열하는 것은 끝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청에 대해서도 시설장이 특수교육 장학사에게도 국가 권위위원회에도 이야기했지만, 도교육청 특수교육과 자체조사 결과 시정 권고로 종결됐다는 것이다. 이에 교사는 법인이사회에 탄원서를 제출했

지만 탄원서 내용이 고스란히 관리자에게 들어가 해당 교직원들을 일대 일로 만나 회유하며 징계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 학부모는 이사회에서 "장애인 특수학교로 최대 14년까지도 한 학교에 다니는데, 작년까진 교사와 학부모 간 사이가 좋아 행복한 학교였다"면서 "이사장이 갑질로 중도 사임한 이후 교장과 교감 그리고 장학관이 같은 학교 동문이라는 이유로 서로 감싸면서 학교 분위기는 동료간의 감시로 일관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자라에 참석하지 못한 한 피해교사는 발언문 대독을 통해 "장애학우들의 특수교사라는 자부심이 매우 컸다. 하지만 법인 이사회를 등에 업은 교장·교감의 갑질에 너무 힘들었다"면서 "교권에 앞서 인권을 찾고 싶어서 같이 나섰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15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제7회 교육감 공약관리위원회

김승환 교육감, 공약이행률 88.1% 공약관리위원회 개최... 47개 사업 중 이행완료 33개

김승환 교육감의 공약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제7회 교육감 공약관리위원회를 개최, 김승환 교육감의 47개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한 결과 12월 말 기준 88.1%의 이행률을 보였다. 이는 올해 목표였던 86.8%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지난 6월 말 기준 83.7%에 비해서도 4.4%p 상승한 것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8년 3기를 출범하면서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비전으로 삼아 5대 분야 47개 공약사업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율과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 18개 사업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 8개 사업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 6개 사업 ▲정원은 기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 9개 사업 ▲소통과 협력, 건강한 마을교육공동체 6개 사업 등이다. 이중 현재까지 이행완료 사업 33개, 정상추진 사업 11개, 일부추진 사업 3개로 나타났다. 이행완료 사업으로는 해양안전

센터 설립, 외국어교육지원센터 설립, 민주시민교육 및 노동정책 총괄부서 설치, 사무관 및 서기관 역량평가 실시, 학교행정실 법제화,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거버넌스 기구 운영 등이 있다. 또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 미래통일세대를 키우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지원, 교육주체가 함께하는 학교자치 실현, 전라북도교육수련원 설립, 학부교육 자문단 운영 등은 정상추진 사업으로 임기 종료 시점까지 이행완료가 예상된다. 반면 일부추진 사업으로는 대안 교육 활성화와 교원의 전문성 함양 지원 사업 등이 있다. 김승환 교육감은 "남은 임기동안 교육가족들의 이야기에 더 많이 귀 기울이고, 모든 교육공동체가 서로 협력해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등 10건을 제정하고, 전라북도 교육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업 3개로 나타났다. /정은성 기자

기술창업 활성화 공동네트워크 구축 전주대-전주비전대 협약

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15일 전주비전대에서 전주비전대학교 창업보육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이종관 창업중점교수 김다은 매니저와 전주비전대학교 창업보육센터 김형기 팀장, 심창연 박현영 매니저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업 기술·투자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공동개발 및 사업 수행과 경영·기술 자문을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양 기관은 향후 긴밀한 상호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기관의 발전과 입주기업의 창업성공률을 제고 시키기로 했다.

전주대 창업보육센터장 이상우 교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프로그램을 개발해 입주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와 전주비전대 창업보육센터는 지난 11월 17~18일 2일 간 네트워킹 브랜드 마케팅 교육 및 네트워크 회계·세무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정은성 기자

"옛 명성 되찾아 새로 거듭나는 검토회 만들 것"

통합 제1대 전주시검도회장에 구본승 변호사 당선



전주시검도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원준희)는 구본승(만 47세) 변호사가 단독 후보로 등록, 이에 선관위는 후보자에 대한 적격 심사를 거쳐 지난 12일 당선인으로 확정 공고했다. 이로써 2016년부터 통합에 어려움을 겪은 전주시검도회는 비로소 통합 제1대 회장을 선출하게 됐다.

구 당선인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의정부 대구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검

사롭게 거듭나는 전주시검도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본격적 임무로 내년 1월 중 정기대 의원총회를 개최해 임원 구성을 마치고 전주시 16개 공인도장 관장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해 서로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육성학교 재 창단 및 전국대회 개최 등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 전라북도검도회 수석지도사생이신 전영술 선생님과 임영석 회장님 이하 각 시·군검도회 회장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15일 전라북도검도회 임영석 회장 이기웅 실무부회장, 원준희 전주시검도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한의희 순례검도관 장정이 직접 당선인 사무실을 방문해 당선증을 전달하고 축하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오늘 '수업나눔 멘토링 워크숍'

수석교사와 신규·저경력 교사 간 수업성장 공감 소통의 장 마련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16일 전주 그랜드힐스호텔에서 중등 수석교사와 신규·저경력 멘토링 참여 교사 50여 명을 대상으로 수업 성장 멘토링 성과 공유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수석교사와 신규·저경력 교사의 멘토링 프로그램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수석교사와 신규·저경력 교사 간 수업성장 공감 소통의 장

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세부 일정은 ▲코로나 시기 멘토링 및 교수학습 운영사례 발표 ▲수석교사와 신규·저경력 교사의 멘토링 성과 성찰 ▲2022년도 발전적 계획 방안을 모색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수석교사제'는 수업 전문성이 있는 교사를 수석교사로 선발해, 그 전문성을 다른 교사와 공유하는 교원 자격제

제다. 수석교사는 교사 임용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교사들을 상대로 멘토가 돼 수업 방법론을 실증적으로 전수해 주는 것으로 수업 멘토링을 나누는 중요한 역할을 갖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석교사와 신규·저경력 교사의 교류를 통한 관계를 증진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토대로 수업에 대해 고민을 공유함으로써, 자기성장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 공립 유·초·특수교사 임용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총 162명 합격, 내년 1월 전주화정중서 제2차 시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2학년도 전라북도 공립 유·초·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 시험 합격자 162명을 확정, 15일 전북교육청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서는 109명 선발에 883명이 지원에 유치원 45명, 초등 87명, 특수유치원 12명, 특수초등 18명 등 총 162명(일반 159명, 장애 3명)이 1차 시험에 합격했다.

개인별 합격여부와 성적은 나이스 교육원 온라인채용시스템(https://oduremit.je.go.kr)에서 20일 오후 6시까지 본인 인증시 조회가 가능하다.

제1차시험의 경우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성적이 높은 사람 순으로 모집인원의 1.5배수를 합격자로 결

정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제1차시험의 합격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로 결정했으며,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는 경우 모두 합격 처리했다고 밝혔다. 제1차시험 합격자는 16일~20일 오후 6시까지(공휴일 12시~13시 제외) 등기우편 및 방문을 통해 관련서류 등을 전북교육청(1층 행정지원실)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최종합격자 결정을 위한 제2차 시험은 내년 1월 12~14일까지 교직적성 심층면접, 수업실연, 영어수업실연(초등), 영어면접(초등)의 과목으로 전주화정중학교에서 실시되며, 2월 4일 전라북도 교육청 홈페이지(www.je.go.kr)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원광대 김성훈 교수팀, 복합체 최상위저널에 연구결과 발표

원광대학교는 김성훈(전자융합학과) 교수팀이 연구 결과를 복합체 분야 최상위 저널(JCR 랭킹 상위 1%)인 컴포지트 파트B:엔지니어링(Composites Part B: Engineering)에 발표했다.

연구는 생체적합성 마그네틱 하이브리드 복합체를 이용한 표적형 열치료·약물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마

이크로로봇 개발에 관한 결과물이다. 김 교수팀은 한치료를 위한 마그네틱 하이브리드 기반의 표적형 열·약물방출 제어 가능한 마이크로로봇 메커니즘 연구를 통해 개발된 로봇은 자기장을 이용해 표적까지 정확히 이동 가능함을 입증했다.

/약산=이득훈 기자